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7호【루계 제2325호】

주체104(2015). 4. 25 토요일 음력 3. 7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 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4월 18일 새벽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해돋이를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람이 초당 25m로 강하게 불어치는 백두산정에 거연히 서시여 백두산칼바람을 한몸에 맞으시며 저 멀리 동쪽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백두산의 기상은 볼수록 장엄하다고, 백두산해돋이는 그 어디서나 볼수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절경이라고,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새날은 백두산에서부터 밝아온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여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며 조선혁명의 발원지, 승리의 상징,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따라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이라는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백두산마루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행군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전투비행사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켜보고있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조국의 푸른하늘을 지켜가는 길에서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선군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백두산정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성원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4월 17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전투비행사들을 현지에서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행군대성원들은 전투비행사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몸소 조직해주시고 친어버이의 사랑으로 답사행군 전 과정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으며 오늘은 자기들을 만나주시려고 수천리 먼길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전투비행사들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이 담긴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김정은육탄결사대로 더욱 억세게 준비할것을 맹세하는 결의대회에는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량옆에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결의대회는 노래 《우리는 출격명령만 기다린다》의 합창으로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서 동무들을 만나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보고싶었다고, 답사행군에 참가한 동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매일같이 보면서 만나보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백두산전구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난 심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국사를 뒤로 미루고 수천리길을 달려온것은 사랑하는 전투비행사들과 맺은 정때문만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눈바람세찬 백두산지구에서 보낸 동무들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투비행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혁명적신념이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의 대결전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전이며 물러설 길이 없는 하늘싸움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근본요인도 혁명적신념, 혁명정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이 간직하였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를 가슴깊이 쪼아박고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불굴의 신념을 지닌 강자들만이 하늘초소를 지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신념과 정신은 구호나무의 글발이나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천만군민이 투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정신을 떠나 조선혁명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을 안고 만난시련을 이겨내고 싸워 이긴 투사들처럼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항공 및 반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모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안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결의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884군부대 부대장 김영진, 제447군부대 추격기비행사 김철, 제2620군부대 녀성추격기비행사 조금향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결의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결의대회는 노래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합창으로 끝났다.

대회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하늘가로 힘차게 울려퍼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에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이 보통때, 보통날에는 열백밤을 밝혀도 미처 다 알수 없고 말과 글로써는 체득할수 없는 백두산칼바람의 진짜맛을 심장으로 절감한 답사행군의 나날을 언제나 잊지 말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그 어떤 원쑤들도 범접하지 못하게 조국의 령공을 철옹성같이 지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돌격대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으로 오느라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다고, 발전소건설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외국방문을 마치신 길로 불편하신 몸이였지만 이런 산세험한 곳까지 찾아오시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저려온다고,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걸을수록 정말로 우리 장군님 같으신 분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갈마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정형과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이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기본건설대상인 1호발전소 콩크리트언제공사를 다그치면서도 2호발전소 사석언제건설을 완전히 끝내고 2호발전소 물길굴건설도 마감단계에서 진척시키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발전소건설을 립체적으로 전개해온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과 혁명전적지들이 있는 량강도의 인민생활과 경제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1호, 2호발전소 건설을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발휘되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애국심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 둘도없는 청년강국이라는것을 힘있게 과시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새로운 시대어로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건설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볼수 있었다고, 자신께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대자연과의 싸움을 벌리고싶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장에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곳곳마다에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세운 조선청년들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우리 당의 70년 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라는것을 온 세상에 떨치자고 하시면서 완공의 기쁨속에 이곳에서 청춘들의 대합창공연을 진행하자고, 자신께서 꼭 보시겠다고, 그날 발전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자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건물외부만 보아도 멋있다고, 두달전에 이곳을 돌아볼 때는 먼지가 풀썩이고 골조만 서있었는데 벌써 완공을 앞두었다고, 이 일대가 천지개벽되였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행복의 선경들이 련이어 펼쳐지는 사회주의락원에 멋쟁이집이 새로 일떠섬으로써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릴 수 있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보육실, 교양실, 아동도서실, 자연관찰실, 지능놀이실, 오락실, 종합놀이장, 물놀이장, 목욕실, 리발실, 치료실을 비롯한 육아원, 애육원의 모든 방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시공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건설하면서 외벽과 내벽타일, 위생자기는 물론 야외에 깔아놓은 고무깔판도 우리가 만든 마감건재를 리용하였는데 세계적수준이라고, 이것은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흠잡을데 없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희한한 궁전이 일떠섰다고,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뛰여놀게 될 원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심정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투쟁을 벌리였다는데 수고들이 많았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남은 공사를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도록 완전무결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제아동절인 6월 1일에 원산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불패의 강군으로 위력 떨치는 영웅적조선인민군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자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80여년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새겨오고있다.

외세의 침노로 반만년 력사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망국민의 설음이 구천에 사무쳤던 암흑의 그 세월 나라를 찾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둘이 아니였지만 일제의 총과 대포앞에서는 너무도 무맥했고 결과 산발적인 독립운동을 벌리다 주저앉고 혹은 인민들에게서 군자금이나 거둬들이며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기가 일쑤였다.

오직 일제와의 조직적이며 장기적인 무장항전을 벌려 침략자들을 벌벌 떨게하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위업을 이룩한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지휘하신 영웅적인 항일무장대오였다. 무장한 강도일제와는 무장으로 맞서싸워야 하며 독립은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천명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안도의 밀림에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15성상이나 간고한 항일대전을 벌리시였다.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무장과 피복,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벌어진 항일대전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하고 힘겨운 싸움이였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비장한 결심을 다지시고 무장투쟁에 나서신 수령님께서는 적들에게서 무장을 빼앗고 인민들의 지지성원속에 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시면서 령활한 유격전법으로 가는 곳마다 일본군을 쳐부시고 련전련승의 자랑스러운 신화들을 창조하시였다.

항일의 총성이 높이 울려퍼지던 백두산은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구원의 등대였고 빨찌산대장이신 수령님은 《백두산호랑이》, 《김대장》으로 온 겨레의 추앙을 받았다. 《동양제패》를 떠들던 일본군은 가는 곳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혈전으로 마침내 이룩하신 민족재생의 사변이였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나날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지킬 무력건설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시여 공화국의 군대를 정규적인 무력으로 확대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그 군대와 인민의 힘을 조직동원하여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한 미제침략자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으시고 위대한 전승의 신화를 또다시 창조하시였다.

한 세대에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두 제국주의강적을 통쾌하게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로 오늘도 우리 겨레와 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계신다.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지나온 력사를 통하여 뼈저리게 실감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국가건설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총대중시, 군사중시를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셨고 지난 세기 60년대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국방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였다.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위협소동으로 이 땅이 언제한번 평온한적 없었고 당장 전쟁으로 번져질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지만 그때마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뛰여난 지략과 세련된 령군술, 날로 장성강화된 조선인민군이 있어 공화국은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었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무적강군으로 더욱 장성강화되였다.

1990년대에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화로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공화국은 포성없는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정치군사적안목으로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장군님께서는 결연히 선군의 보검을 높이 드시고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인민군대를 무적의 전투대오로 더욱 완성시켜나가시였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력사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전선에서 전선으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종횡무진하시며 인민군장병들에게 백승의 전법과 전술을 가르쳐주시고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장군님이시다.

그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에 의해 인민군대는 승리의 전통을 변함없이 꿋꿋이 이어올수 있었고 공화국은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오를수 있었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는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백두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있다.

문무를 겸비하시고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쉬임없는 시찰로 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여 공화국의 안전을 무궁토록 담보하고 발전의 넓은 앞길을 열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안에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시고 군인들의 생활도 세심히 보살펴주고계신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무비의 담력과 배짱, 비범한 령군술을 지니신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제국주의의 그 어떤 압살책동속에서도 공화국은 끄떡없고 민족의 안전은 굳건히 지켜지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김 성 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훈련도 실전과 같이

지난 1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전선군단 제1제대 보병사단 직속구분대들의 비반충포사격경기대회가 있었다.

하늘땅을 뒤흔들며 포신들에서 뿜어져나온 시뻘건 불줄기들이 목표들을 사정없이 날려보내는 통쾌한 광경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기대회에서 특등을 쟁취한 사단에 명포수상장을, 군인들에게는 명포수메달과 명포수휘장을 수여하시고 기념사진도 찍으셨다. 그러시고는 군인들을 명사수, 명포수로 준비시키는것은 조국의 운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시고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오늘의 훈련은 곧 치렬한 전투와 같다고 하시면서 전투정치훈련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가지고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강도높이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사랑과 믿음으로 하는 정의의 대전

석달전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인민군부대들의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이 진행되였다.

적항공모함을 가상한 섬에 대한 군종타격진행순차와 방법을 알아보시고 비행대에 전투출동명령을 하달하신 원수님께서는 초저공으로 바다우를 스칠듯 날으며 그물같이 촘촘한 《적》의 반항공망을 과감히 뚫고 타격대상물에로 접근하는 도약습격기동을 보시며 정말 잘 한다고, 마치 우리 조국의 국조인 참매를 방불케 한다고 비행훈련을 치하하셨다. 이어 비행대타격에 얻어맞고 얼이 나간 대상들에 대한 잠수함련합부대들의 련속적인 어뢰공격이 진행되였다. 훈련은 침략세력이 방대한 무력으로 새 전쟁도발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조선반도부근 작전수역에 기여들기만 하면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은 물론 모든 목표가 부나비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이 첨단군사과학기술에 대하여 으시대고있지만 군사력대비에서 순수 과학기술적평가만을 우선시할수 없으며 적과의 싸움은 결코 무장장비의 대결, 물리적힘의 대결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대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군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 동포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강렬한 감정이다.

몸은 비록 타향에 있어도 마음속에는 자나깨나 늘 조국이 있다. 이번에 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일 전야에 조국을 방문하여 그분의 생가도 찾고 김일성화축전장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봤다. 정말이지 조국의 현실은 경이적이다.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시버섯공장이며 시간을 다투며 일떠서는 대동강반의 미래과학자거리의 주택들과 쑥섬일대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

보다 큰 감동을 받은것은 인민을 위해 일떠서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모두 군대가 맡아하는것이였다.

조국에서 군대가 인민을 돕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것은 이미 알고있는 바이지만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인민들이 살 집을 짓고 인민들이 향유할 문화생활기지들을 건설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며 도맡아하는것을 제눈으로 목격하면서 많은것을 느끼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들을 위해 군대를 건설의 주력으로 정해주신것이였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서 본 《북의 선군정치의 목표는 민중의 행복한 생활》이라고 쓴 글이 떠올랐다.

정말이지 세계가 그 위력을 느끼는 조국의 선군정치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애국의 정치이다.

위대한 장군님대에 조국수호의 강군으로, 행복의 창조자로 장성강화된 인민군대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속에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놀라운 위훈을 떨치고있는것이다.

지금과 같이 자기 코앞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대규모북침전쟁불장난을 벌리는 속에서도 배포유하게 군대를 평화적건설에 돌리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는 조국의 강한 모습을 보았다. 이런 조국이 있어 해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의 마음도 언제나 든든하다.

박 진 평(재로동포)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무궁토록 조국을 받들렵니다

차 상 보

뜻깊은 태양절을 저는 조국에서 경축하는 크나큰 행운을 지녔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조국의 현실을 직접 체험할수록 감개가 깊어지고 어버이수령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저희들을 만나주실 때마다 잊지 못할 항일전의 나날을 추억하시며 백두의 넋을 심어주시던 수령님의 모습을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20여년전 제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재중공민대표로 참가하였을 때에도 몸소 만나주시고 저의 외할아버지가 항일전의 나날 삼도만에서 잘 싸운 《뽀족로톨》이라고 별호까지 잊지 않으시고 다정히 회고하여주시며 애국가문의 자손답게 나라의 통일번영에 기여하리라는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주체의 해외공민조직으로 튼튼히 꾸려져 애국애족의 넋을 심어주는 단체, 동포들의 정든 집으로 불리우며 날로 흥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고있기때문입니다.

태양절을 맞으니 항일의 옛 전장들에 아로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조국과 숨결을 같이 하여온 나날들이 감회깊이 되새겨져 붓을 들었습니다.

1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사상과 정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되였습니다.

돈과 재부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사상과 정신은 영원하고 사회와 력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합니다.

한때 침략과 지배로 그 힘이 세계도처에 뻗쳤던 고대로마가 망하고 한갖 력사이야기로만 전해지게 된것도 물질적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신도덕적부패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길들이는 힘이 없고 정신을 꺾는 칼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강한 정신력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고 이겨내지 못할 난관이 없습니다.

우리 조국이 지나온 년대기들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전설같은 기적을 수놓으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올수 있은것도,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격동적인 현실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백두의 혁명정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 진정 백두의 혁명정신은 천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이며 우리 조국의 빛나는 승리와 창창한 전도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입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에 높뛰는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을수록 이 위대한 정신을 운명의 피줄처럼 간직하고 이 위대한 정신으로 삶의 근본을 밝히며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이 된 긍지로 마냥 가슴부풀던 나날이 돌이켜집니다.

저의 가문에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항일전에 떨쳐나섰던 사람만 해도 11명이나 됩니다.

철부지시절 어머니는 자주 연길현 삼도만유격구에서 왜놈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된 외할아버지를 비롯하여 가문의 선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군 하였습니다.

가문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린 가슴에도 애국의 넋을 뜨겁게 부어주어 자주 저의 마음을 압록강너머 조국땅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도문시의 봇나무아래에서 애젊은 처녀시절의 안해와 련정을 속삭이며 처음 나눈 이야기도 조국을 잊지 말자는것이였습니다.

인생의 초시기에는 나름대로 성공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역에서나마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이웃들과 화목을 도모하며 사는것도 그 시절엔 희열이였고 20대 초엽에 한 공장의 관리일군으로 성장했을 때는 남다른 자부심으로 가슴 들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두의 천리수해를 넘어 끝없이 파도쳐오는 조국의 격동적인 소식은 저의 가슴에 삶의 근본을 새롭게 깨우쳐주었고 애국은 결코 조국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초월한 한없이 위대하고 거룩한 세계임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체험이 저로 하여금 때일찍 공민사업에 몸을 담그게 한 계기로 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민사업에 뛰여들었다고 하여 조국을 위해, 삶의 근본을 지켜 제할바를 다하고있다고 떳떳이 자부할수 없었습니다.

공민학습조(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신)가 조직되여 여러해 세월이 흘렀지만 일부 공민들은 기업운영과 생업에만 치중하고있었으며 결과 학습조활동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적지않았습니다.

현실은 공민들의 사상정신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재중공민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애국의 한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도록 떠밀어준것이 백두의 혁명정신이였습니다.

당시 조국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속에 보천보와 삼지연, 청봉과 대홍단을 비롯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이 새롭게 꾸려지고 답사행군대오가 끊없이 굽이쳐흐르는 화폭이 펼쳐져 시대를 들썩이게 하였습니다.

가자, 백두산으로, 항일의 옛 전장으로.

이것은 공민학습조 모든 성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들은 해마다 조국의 주요명절때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유서깊은 전적지들을 찾고 답사행군도 진행하고있습니다.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험한 산발을 헤치고 넘을 때면 식량도 떨어지고 고생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컸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심장의 고패를 치며 뜨겁게 어려온것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장백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을 새겨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만고풍상의 력사였고 천신만고하며 무장항전을 벌렸을 투사들의 모습이였습니다.

답사행군을 진행하는것도 이렇듯 힘에 부칠진대 높고높은 험산준령 그 고비고비를 하루에도 몇차례씩 찰거마리처럼 달려드는 일제강도배들과 혈전을 벌리고 눈보라와 굶주림과 병마와 싸우며 넘어야 했을 항일선렬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숙연해지고 휴식시간에 따뜻한 차 한고뿌 마시는것도 죄송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간고한 행군길을 항일선렬들이 한두해도 아닌 20성상을 하루와 같이 이어간 그 불굴의 정신력은 어디에 기인된것인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미증유의 도전속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낳게 한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의 생각은 여기로 모아졌고 그에 대해 더 깊이 알고싶어 소왕청과 마촌, 삼도만 등 수령님 마련해주신 인민의 새 세상을 지켜 유격구사수전에 떨쳐나섰던 체험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장군님의 천출위인상에서 그 대답을 찾고있었습니다.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아뢰이는 소박한 이야기들에서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헤아리군 하신 수령님이시였습니다.

세계정권사에 처음으로 되는 인민정권건설로선도 그렇게 탄생했고 인민혁명정부에서 베푸는 시책에 의해 난생 처음 제땅도 가져보고 자식들 글공부도 시켜보았다며 체험자들 누구나 눈시울을 적시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전법은 정말 기묘했다고, 무적황군이라고 으시대던 왜놈들이 **김일성**장군 빨찌산앞에서는 그야말로 추풍락엽이였다고 무릎까지 철썩철썩 쳐가며 유격구방위전과 간삼봉전투때 있은 《호박대가리》 이야기까지 곁들어가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흥취나고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높이 모신 절세위인에 대한 매혹과 경탄을 금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힘이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조국해방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만다는 그 억척불변의 신념은 항일투사들로 하여금 시련의 광풍앞에 드놀지 않고 난관을 맞받아 일어나 싸울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습니다.

라자구와 로흑산, 천교령의 험준한 산발들은 오늘도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감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만난시련을 타개해나가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헌신의 세계, 항일무장투쟁의 만단사연을 길이 전하고있습니다.

라자구오지에서 굶어죽지 않고 얼어죽지 않고 총탄에 맞아죽지 않은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회고와 더불어 항일혁명의 간고함을 피절게 깨우쳐주는 로흑산의 전설, 혁명이 천교령의 빙설속에 그대로 매장되여 영영 자취를 감추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적인 시각이 도래했던 제1차 북만원정, 수령님께서 이런 행군의 력사를 유산으로 가지고있는 인민은 어떤 힘으로써도 정복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뜨겁게 추억하신 고난의 행군…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숭고한 자각,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를 쓰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 한다는 성스러운 사명감, 인민의 운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으로 심장을 끓이시며 불사신처럼 일어서군 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그 불타는 애국애족의 넋은 투사들의 심장속에 뜨겁게 흘러들어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나가는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를 낳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정신입니까.

이 위대한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득하기 위한 우리의 행군길은 련면히 이어져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있습니다.

항일의 옛 병기창들앞에 서면 지금도 단쇠를 두드리는 함마소리, 연길폭탄에 떼죽음을 당하던 왜놈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고 승전가 높이 울리던 항일전의 랑만적인 오락회가 떠올라 밤이 지새도록 우등불을 피우며 춤을 춘적도 있습니다.

항일의 옛 전장을 찾는 그 성스러운 행군길에서 우리 재중공민들은 몸도 마음도 새롭게 태여났습니다.

가장 간고한 시련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나가는 시대적모범을 창조한 백두의 혁명정신, 그것으로 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끝없이 빛을 뿌리며 전진하는 조국에 힘을 주고 우리 해외동포들에게도 조국을 받들어 진함이 없을 정신적자양을 부어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값높은 삶을 빛내이며 한생토록 애국에 살게 하고 조국과 운명을 굳건히 이어주는 삶의 피줄기와도 같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며 우리 해외동포들의 제일가는 재부입니다.

하기에 재중공민들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백두의 아들딸,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이라고 떳떳이 말하군 합니다.

여기에 백두산과 더불어 새롭게 깨친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 있습니다.

2

우리 재중공민들은 백두산하늘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더욱 긍지높고 또한 그것으로 하여 남달라야 하는것이 우리 재중공민들의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 총련합회의 제일생명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우리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숭엄한 마음으로 우러르군 합니다.

항일의 포연에 그을린 외투자락에 시대의 풍운을 휘감고 왼손에는 쌍안경을 쥐시고 오른손에는 군모를 드신채 멀리 앞을 바라보시며 서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를 때면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있어도 언제나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있는것만 같아 무한한 행복감에 휩싸이군 합니다.

하기에 재중공민 누구나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결사옹위하는것을 제일가는 생명으로 간직하고 순결한 충정을 바쳐가고있습니다.

그들중에는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길림땅에 사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간직하고 수령님의 동상보위사업에 한생을 바쳐가는 공민들도 있고 수령님의 동상을 더 잘 모시기 위해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바쳐가는 공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우기 남조선괴뢰패당이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공화국의 최고존엄의 상징인 동상과 기념비를 파괴하려고 발악적으로 날뛴 《동까모사건》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켰습니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결사보위하는것은 총련합회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주는 피줄기와 같다, 이 불타는 일념, 숭고한 자각을 안고 한몸이 그대로 성벽이 되고 깨끗한 충정을 바쳐가는 재중공민들의 경모에 받들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은 어제도 오늘도 찬연히 빛나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의 현장들과 증거물들을 길이 보존하고 빛내이기 위해 바쳐가는 지성도 만사람을 크게 감복시키고있습니다.

치렬한 격전장이였던 왕청현의 뽀족산을 비롯한 전적지들에 수종이 좋은 소나무를 옮겨심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종이 좋은 소나무를 구하는것도 쉽지 않았지만 수십리나 되는 로정에서 상하지 않게 운반하는 일도 헐치 않았습니다.

전적지들이 인가와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있어 운수기재도 들어갈수 없고 인력으로 운반해다 심어야 하였지만 우리 재중공민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떨쳐나 전적지들에 수백그루의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주는것은 이 사업에 새 세대 청년들이 적극 참가하고있다는것입니다.

답사행군의 길에 얼음이 뒤덮인 감탕길도 나서고 사품치는 강물이 앞을 막아나설 때면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며 헤쳐나가고 혁명전적지에 이르면 소중한 사적물들과 우물터자리까지 정성껏 관리하는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일군들과 청년들을 보며 누구나 재중총련의 희망이 보인다고, 백두산후손들이 다르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모진 세파속에도 그 정결함과 숙연함을 조금도 잃지 않아 찾는 사람들을 류다른 감회에 젖게 하는 항일혁명전적지들은 우리 총련합회가 날로 흥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해주고있습니다.

2012년 4월 뜻깊은 태양절 100돐을 맞으며 우리들은 유서깊은 동북의 삼도만혁명전적지에서 진달래 100그루를 정히 떠가지고 조국을 방문하여 만수대언덕에 정히 심었습니다.

항일의 전구에서 백두의 정신과 넋으로 변함없이 살려는 재중동포들의 신념의 뿌리는 조국땅에도 억세게 내렸습니다.

누구나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살고있기에 우리 총련합회는 끄떡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남조선괴뢰패당은 총련합회를 사분오렬시키고 공민들을 조국의 품에서 떼여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습니다.

색정적인 출판물들을 대량적으로 류포시켜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려고 발악했는가 하면 돈과 물건과 같은 금품수단들을 뿌려대고 기업투자니, 문화교류니 하는 귀맛좋은 유혹으로 저들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어보려고 책동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맞받아 싸웠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려고 발악하는 괴뢰패당의 책동은 조국의 출판물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으로 쳐갈겼고 총련합회의 분렬을 꾀할 때는 더욱 단합된 위력으로 맞서나갔습니다.

백두의 정신에 높뛰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은 이렇듯 총련합회를 지키기 위한 실천투쟁에 구현되여 빛나는 생활력을 발휘하였습니다.

(6면으로 계속)

해외동포들의 삶의 이야기

언제나 따스한 조국의 사랑

사람은 저 하나만이 아니라 진정한 어머니조국을 위해 살 때 그 삶이 더욱 아름답고 고결해진다. 이것은 해외에서 살면서 내가 자주 느끼군 하는 감정이다.

모든 사람들은 조국과 민족이라는 큰 울타리안에서 산다. 나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따뜻한 어머니조국이 있다.

해외에서 인생길을 방황하며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내가 인간의 참된 삶과 기쁨을 찾게 된것은 공화국의 어엿한 해외공민이 되여서부터이다.

길림의 궁벽한 산골마을에서 살면서 삶의 희열과 랑만을 안겨준 고마운 조국을 위해 적으나마 기여한 나를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80돐경축행사에 계주단성원으로 선발하여 파견해주었다. 나는 그때 난생처음 조국땅을 밟으며 조국의 사랑이 얼마나 따스한가를 온몸으로 느끼였다. 평범한 농촌녀성에 불과했던 제가 어버이주석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었으니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지금도 지울수 없다.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동포애 넘치는 환대속에 행복넘친 나날을 보내면서, 주석님의 탄생 기념일을 축하하려고 조국에 온 많은 외국의 정계인사들을 보면서 내 조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엄높은 나라인가를 새삼스럽게 느낄수 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당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께서는 해외에서 온 우리들을 위해 조국방문일정도 몸소 짜주시고 매 사람들에게 몸에 꼭 맞는 새옷을 해입히도록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상편의를 잘 돌봐주며 조국인민들이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해줄데 대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고 한다.

조국의 사랑은 언제나 따스했다.

녀성의 몸으로 남자들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 바다일을 오래동안 해오면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나는 저 멀리 조국의 하늘을 우러르며 힘을 내군 하였다. 조국을 위하는 애국의 이 길에서 힘들다고 결코 물러설수도 없었다.

내가 해외에서 고마운 조국을 위해 한 일이란 별로 큰것도 아니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 힘들어할 때면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고 항상 마음의 기둥이 되여 나의 삶을 인도해주었다. 자주 조국에 와서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릉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희한한 문화휴식장소들에서 마음껏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 때마다 친부모보다 더 살뜰하게 해외에서 사는 우리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따뜻이 보살펴주는 조국의 고마운 손길에 눈시울이 젖어들군 한다. 바로 그래서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말하는것이 아닌가.

부강조국건설에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사랑에는 보답이 따라야 한다. 몇해전부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경제인련합회에서 일하고있는 내가 조국을 위해 다소나마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조국의 륭성번영에 나의 적은 힘이나마 기여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20여년간이나 바다물무역을 해오는 나는 조국의 여러 회사, 기관들과 련계를 맺고 일해오고있다. 그들과 경제적거래를 가질 때 나는 하나라도 그들의 리익의 견지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하군 한다. 비록 나에게 차례지는 몫이 크지 않다고 해도 그들의 일이 잘되면 조국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어머니조국이 있어 해외의 우리 공민들도, 경제인들도 있는것이다.

정말이지 조국의 적극적이고 사심없는 방조가 없었더라면 내가 동료들속에서 오늘과 같은 성공한 기업가라는 평을 받을수 없었을것이다. 조국과 거래를 하는 나의 사업이 잘되는것을 보고 중국사람들은 저저마다 조선과 거래를 하고 조선에 투자하고싶다고 이야기하군 한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긴장하다고는 하지만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계시여 미국이 만약 조선전쟁을 강요한다면 자기들의 최후멸망을 알리는 가장 처량한 장송곡으로 막을 내릴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만큼 매력적인 투자지가 없다는것이다.

지금 여러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저마다 조선을 유망한 투자대상

국으로 보고있다. 얼마전에 조국에서 작성된 경제개발구들에 대한 개발총계획은 많은 투자가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공화국의 실무관계자들은 해외동포투자가들이나 외국투자가들이 경제개발지대밖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도 25%에서 14%로 감소하며 혜택을 주는 한편 장래성이 있는 부문(례를 들어 첨단과학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등)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률을 10%로 낮추어주는 혜택도 실시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투자기업들에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토지임대기간, 세금납부방법 등에서도 혜택을 주고있다는것이다.

나는 매력적인 이 나라에 투자하고싶어하는 그들의 부탁도 들어주고싶고 내가 조국에서 벌릴만한 다른 사업이 없겠는가도 알아보기 위해 조국을 더 자주 방문하군 한다.

어머니조국을 항상 마음에 안고사는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있어 조국은 우리 운명의 피줄기이고 전부이다.

나에게 애국의 넋을 주고 생의 희열과 랑만을 안겨준 조국의 발전을 위한 이 길에 여생을 바치고싶은 마음뿐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제인련합회 회원
허 상 숙

조국의 품에서 영생하는 애국의 삶

전 총련일군들의 유해 애국렬사릉에 새로 안치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총련애국위업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바친 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일군들의 유해가 애국렬사릉에 새로 안치되였다.

숭고한 도덕의리와 해외동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총련을 결성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삶을 빛내인 해외동포일군들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였다.

렬사들가운데는 일본각지에 조선학교를 세우고 동포자녀들을 총련의 대, 애국의 대를 믿음직하게 이어나가는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뚜렷한 생의 흔적을 남긴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초대회장이였던 윤덕곤이 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였던 로재호는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동포들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 한생을 바쳤다.

영생의 언덕에는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한 총련조선대학교 학장이였던 남시우와 동포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반총련책동으로부터 총련조직을 사수하는데 공헌한 총련권도연구원 초대원장이였던 강창수도 올랐다.

렬사들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22일 애국렬사릉에서 진행되였다.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해외동포관계기관 일군들이 의식에 참가하였다.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총련일군들, 재일동포들, 유가족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영대 부위원장이 추모사를 하였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렬사들의 유해가 묘에 안치되였다.

일군들과 렬사들의 유가족들이 흙을 덮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총련조선신보사, 총련조선대학교, 총련권도연구원, 해외동포관계기관들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유가족들의 결의토론이 있었다.

그들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렬사들의 생이 빛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선대들의 애국헌신의 정신을 이어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바쳐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참가자들은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본사기자

(5면에서 계속)

반공화국정탐행위를 감행하다가 조국의 해당기관에 체포된 피뢰국정원간첩들이 얼마전 기자회견에서도 실토하였지만 지금도 피뢰패당은 재중공민들과 동포들을 저들의 추악한 《대북정책》 실현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 동북3성일대를 싸다니며 온갖 불순하고 비렬한 음모를 다 꾸미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련합회를 분렬시킬 수도 없고 그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수도 없으며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애국애족의 한마음을 다 바쳐가려는 동포사회를 절대로 흔들어놓을 수 없습니다.

조국에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리면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을 위해 특색있는 기여를 더많이 하기 위한 애국운동으로 화답하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보폭을 같이하며 언제나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재중공민들입니다.

그 과정에 모범지부, 2중모범지부, 3중모범지부는 나날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총련합회는 중앙본부로부터 중국 동북3성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 이르기까지 뿌리내린 지구, 지부조직들과 경제인련합회, 청년련합회와 같은 계층별에 따르는 조직들을 갖추고 각계각층의 동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전일체를 이루고있습니다.

남들같으면 이주민의 차디찬 설음속에 고통과 불행의 대명사로 불리웠을 우리들이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를 안고 재중조선인운동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고있는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이 마음속에 기둥으로 억척같이 세워져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마운 조국에서는 멀리 이 역땅에 사는 우리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고있습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는 우리 재중공민들에게 해외공민증을 안겨주시여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고귀한 삶의 증표를 안고 언제나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에 적으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지성을 바쳤을 때에는 애국의 단상에 높이높이 내세워주시였습니다.

한생을 공민사업에 몸을 담그고 헌신하고있는 우리 재중공민조직일군들의 소행도 귀중히 여기시여 따뜻이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속에 저도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과 함께 여러차례에 걸쳐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녔으며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삶을 빛내여가고있습니다.

우리 재중공민들은 해빛처럼 뜨겁게 흘러드는 조국의 사랑을 받아안을 때마다 고마움의 눈시울을 적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몸 다 바쳐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군 합니다.

참으로 백두산하늘을 하나의 지붕으로 잇고 조국과 숨결을 같이 하며 사는 우리 재중동포들의 기쁨과 감격은 끝이 없습니다.

그 무상의 행운과 영광을 우리들은 노래 《백두산을 우러러 우리 삽니다》에 담아 즐겨 부르군 합니다.

장백의 산발을 넘어
압록강 물결을 넘고넘어
꿈에도 달려가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
아 태양민족 그 자랑 안고
백두산 우러러 우린 삽니다

오늘 백두의 혁명정신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세기를 이어 높뛰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로 조국인민들을 힘있게 부르고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백두산에 오르시여 백두의 칼바람이 하늘과 땅을 휩쓸며 온 산악을 통채로 뒤흔드는 장쾌한 광경을 부감하시며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TV를 통해 뵈옵던 그날 우리 동포들은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 서로 부둥켜안고 만세의 함성을 터쳤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더 굳게 벼려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원쑤들에게는 돌풍이 되여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라고, 우리는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신념, 불굴의 기상과 의지가 높뛰는 말씀의 구절구절을 심장속에 쪼아박듯 아로새기며 저는 우리 조국이 무엇으로 강대하고 천만년 밝은 미래가 무엇으로 창창히 펼쳐지는가를 뜨겁게 느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지만 항일혈전의 나날에 마련된 백두의 혁명정신은 오늘 조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치고있으며 더욱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를 비롯한 적대세력이 군사적대결로 이루지 못한 《북붕괴》 야망을 그 무슨 자본주의바람을 불어넣어 이루어보려고 발광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에도 비할수 없는 공화국의 강위력한 사상진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장약된 조국인민들의 단결된 힘을 너무도 모르는 가련한자들의 가긍스런 몰골에 실소를 금할수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태양절을 맞으며 날로 더해만 가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이 피운 2 000여그루의 꽃나무와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 같으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늘처럼 우러르며 애국사업에 몸바치려는 불타는 결의를 담은 도서 50여권을 안고 평양으로 달려왔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온넋을 불태우며 무궁토록 조국을 받들어나가려는것은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원모두의 한결같은 의지입니다.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온 누리를 더 붉게 물들이며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의 새 아침을 기어이 불러올것입니다.

(필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임)

↑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돌아보는 해외동포들
← 백두산답사를 진행하는 공화국인민들

조선의 국수-소나무

최근 공화국에서는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하였다.

국수의 지정으로 소나무는 더 빛을 뿌리게 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제재와 압박을 박차고 최후승리의 래일을 향해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는 공화국의 슬기롭고 억센 모습도 소나무와 더불어 더욱 부각되게 되였다.

공화국기 펄럭이는 푸른 하늘에는 국조인 참매가 기운차게 날고 땅우에서는 국수인 소나무들이 조선의 기상인양 푸른 잎새들을 한껏 펼치고있다.

전변의 새 력사를 수놓아가는 공화국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또 하나의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소나무와 우리 민족

세상에 나무는 많아도 소나무처럼 우리 겨레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정으로 련결되여있는 나무는 쉽지 않다.

우리 겨레는 오랜 옛날부터 소나무를 심고 가꾸며 사랑하여왔다. 전해져온데 의하면 소나무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살기 시작한것이 수천년전이라고 한다.

반만년 민족사에서 언제나 겨레의 삶과 얽혀져온 소나무이다.

소나무는 설한풍속에서도 푸른 빛을 잃지 않으며 바위에도 뿌리를 내리는 억센 나무이다. 이런 소나무를 오래전부터 우리 겨레는 민족의 강의한 의지의 상징으로, 민족적기상과 슬기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사람의 일생을 표현할 때 서양인들은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먼 옛날부터 《소나무에서 나서 소나무로 돌아간다.》는 말이 전해져오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로 집을 짓고 살았다. 새 생명이 태여나면 금줄에 푸른 생솔가지를 꽂아 대문에 내걸어 세상에 태여났음을 알리였다. 이렇게 새 생명은 태여난 첫날부터 소나무의 기운을 받았다. 산모가 먹을 첫 국밥도 마른 솔잎이나 솔가지를 태워 끓였다. 아이가 태여난지 사흘째인 삼날이나 이레째인 칠날에는 청솔잎으로 집안에 정화수를 뿌리면서 산모의 건강과 새 생명의 장수를 빌었다.

정월대보름전후에 솔가지를 꺾어 문에 걸어두는것, 출산때나 장을 담글 때 치는 금줄에 숯, 고추, 백지, 솔가지를 끼워놓는 풍습도 있었다.

아이들은 소나무 우거진 뒤동산을 놀이터삼아 자랐다. 솔방울을 장난감삼고 솔씨를 털어먹으며 뛰여놀았다.

소나무의 여린 뿌리는 훌륭한 실이나 끈이 되였다.

봄이 오면 물오른 솔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낸 뒤 송기를 갉아먹고 갈증을 달래면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초근목피》라는 말이 전하듯이 흉년이 들면 소나무는 식량이자 약으로 되였다.

우리 선조들은 솔잎으로 죽과 술을 만들기도 했고 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했다. 송화가루로는 과자를 만들었으며 송이버섯, 복령(솔뿌리혹)을 약으로 복용했고 송진으로는 관솔불과 약을 만들었다. 곡식을 끊고 솔잎만 조금씩 먹고 사는것을 벽곡이라 했다. 설날을 비롯한 민속명절들에는 솔잎을 깔고 쪄낸 송편을 꼭 먹었다.

성년이 되면 초례상에 대나무와 소나무를 꽂고는 정절과 사랑을 맹세했다.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태여나 솔잎타는 연기를 맡으며 한생을 보낸 뒤 죽으면 역시 소나무 우거진 산에 묻히였다.

정녕 우리 선조들의 삶은 태여나서 마지막날까지 소나무와 너무도 깊이 얽혀져왔다.

우리 민족정서의 밑바탕엔 솔의 빛갈, 솔바람소리, 솔향, 솔그늘이 드리워져있다.

소나무란 단어는 《솔》과 《나무》의 합성어이다. 솔은 《상(上)》, 《고(高)》, 《원(元)》의 뜻을 가지고있는데 나무가운데서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수리》라고 불렀다. 《수리》는 《술》로 변하고 다시 《솔》로 변해 자리잡았다. 이같은 변천과정에서 소나무는 신성하고 높고 큰 상징이 되였다.

혁명가의 신념의 상징

소나무는 눈서리에 파묻혀도 살아숨쉬며 겨울을 이기는 굳센 나무이다. 좋은 땅, 굳은 땅 가리지 않고 그 어디서든 줄기와 잎을 뻗치고 지어 날새들도 앉기 힘들어하는 아찔한 벼랑턱에도 억세게 뿌리를 박고 하늘을 치받으며 서있어 웅건한 자태를 시위한다.

이런 소나무는 만경대일가분들에 의해 혁명가의 억센 신념을 상징하는 뜻깊은 나무로 되였다.

지금도 방문자들의 행렬이 줄지어 흐르는 유서깊은 만경대에 가보면 한편의 시구절이 참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군 한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피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
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독립의 념원과 견결한 투쟁의지를 담아 한자한자 쓰신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

이 시구절을 읽고 절가화된 노래를 조용히 불러보느라면 룡트림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락락장송의 웅장한 자태나 푸른 기운을 시원하게 몰아오는 소나무는 오래전부터 많은 시인들과 화가들의 대상으로 되였다.

신라의 솔거가 황룡사벽에 그렸다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였으며 고구려벽화무덤인 진파리제1호무덤에 상서로운 구름을 이고있는 나무 역시 소나무이다.

김정희(1786-1856)의 수묵화 《세한도》에서의 소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형상되였다.

리인상(1710-1760)의 《설송도》는 두그루의 눈덮인 나무를 형상하고있다. 정선(1676-1759)은 특유의 내리긋는 단호한 필치로 금강산의 소나무를 그렸으며 김홍도(1745-?)는 소나무밀에서 생황을 부는 신선을 그렸다.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를 대, 매화와 함께 《세한삼우》로 꼽으면서 지조를 상징하는것으로 여겼고 해, 산, 물, 돌, 구름, 불로초, 거북, 학, 사슴과 함께 십장생의 하나로 꼽았다.

《송무석수》라는 말은 날로 무성해가는 소나무의 잎과 절로 천년의 나이를 먹는 바위처럼 장수하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소나무와 관련한 문화는 오늘날에도 전해지고있다.

강원도의 송도원, 황해북도의 송림시, 개성의 송악산, 평안남도 백송리 등 《소나무 송》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많은것도 소나무에 대한 겨레의 애착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기나긴 삶의 력사속에 언제나 함께 있어온 소나무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아버님의 지원의 숭고한 뜻과 굴함없는 신념과 의지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시며 일제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피어린 무장투쟁을 벌려 끝끝내 나라를 찾아주시였으며 민족의 슬기와 억센 기상이 어려있는 소나무를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신념의 상징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수령님 슬하에서 자라난 조선의 혁명가들은 누구나 다 신념의 강자들이였다. 오늘도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고동치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항일선렬들의 맹세의 구호가 그것을 보여주고 수십년간의 옥중생활과 악착한 고문, 전향강요와 갖은 회유에도 추호도 굴하지 않고 통일신념을 지켜 끝까지 싸운 비전향장기수들의 애국의 삶이 또한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소나무에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억센 신념도 어려있다. 그 바탕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매혹과 숭배가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님들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오직 하나의 마음, 변함없는 이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장군님을 받들어왔으며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의 령도따라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문명국가를 보란듯이 건설해가는 군대이고 인민이다.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설사 지구가 깨여져나간다 해도 오직 자기 령도자만을 끝까지 받들고 애국의 성의와 열의를 다해 그 령도를 따르는것은 우리 겨레가 대대로 소중히 여겨온 소나무의 변함없는 한모습, 그 절개를 보는듯하여 누구나 감동을 금할수 없게 한다.

억센 그 모습은 조선의 기상

지금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적대세력들은 갖은 억측과 외곡, 비렬한 모략과 날조로 조선에 대한 비방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세계의 언론무대를 거의 독점하다싶이한 서방의 거짓선전을 매일같이 들으며 공화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있는 행성인들도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조선의 모습을 알고싶어한다면 소나무를 보라고 말하고싶다.

소나무는 사시장철 푸르른 바늘잎나무이다. 마가을바람에 나무잎들이 떨어지고 가랑잎들이 딩굴어도 잎이 지지 않는 소나무이며 강산이 백설천지가 되여도 소나무는 자기의 억센 모습을 시위하듯 푸르른 자태를 바꾸지 않는다. 겨울의 칼바람이 기승을 부려도 끄떡하지 않는 소나무, 눈속에 파묻혀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

소나무의 그 기상이 바로 조선의 억센 기상이다.

공화국의 창건력사는 어언 67년을 헤아린다. 결코 짧지 않은 력사이다. 그러나 그 오랜 력사속에서도 자주의 한길, 사회주의의 한길만을 꿋꿋이 걸어온 공화국이다. 세계에 나라는 많아도 자주성이 제일 강한 나라가 조선이다. 대국들의 압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령토는 작아도 큰소리를 내는 나라, 다른 나라들이 어떤 길을 가든 오직 자기가 선택한 정의의 그 길로 곧바로 가고 자기 식으로, 자기 힘으로 조선식락원을 꾸려가는 나라, 이런 조선의 당당하고 존엄넘친 모습에 언젠가 외국의 한 인사도 《조선은 작아도 대국》이라고 했다.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졌어도 조선에서는 20여년이 지난 오늘도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고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변화》와 《개혁》타령이 그칠새없이 들려오는 지금 이 시각에도 조선식변화발전의 길, 병진로선의 항구적인 그 길로 변함없이 꿋꿋이 나아가는 공화국이다.

세계에는 자본주의회오리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공화국이 가는 길을 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준동도 날로 악랄해지고있다. 그속에서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계속 고수하며 전진해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화국에는 다른 나라들에는 없는 가장 강한 정신적힘-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는것이 있다.

그 정신으로 미국의 압살공세를 맞받아 쳐갈기고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이겨내고 유혹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꺾이지도, 굽히지도 않고 제힘으로 강성국가를 건설해가는 공화국의 불굴의 모습은 자연의 온갖 풍파에도 흔들림없는 소나무의 억센 기상그대로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노래를 불러도 《무성한 잎새우에 흰눈을 뎌이고서/ 푸르러 설레이는 한그루 소나무여/ 세상이 변한대도 제 모습 잃지 않을/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라는 신념과 의지의 노래를 사랑하며 즐겨부르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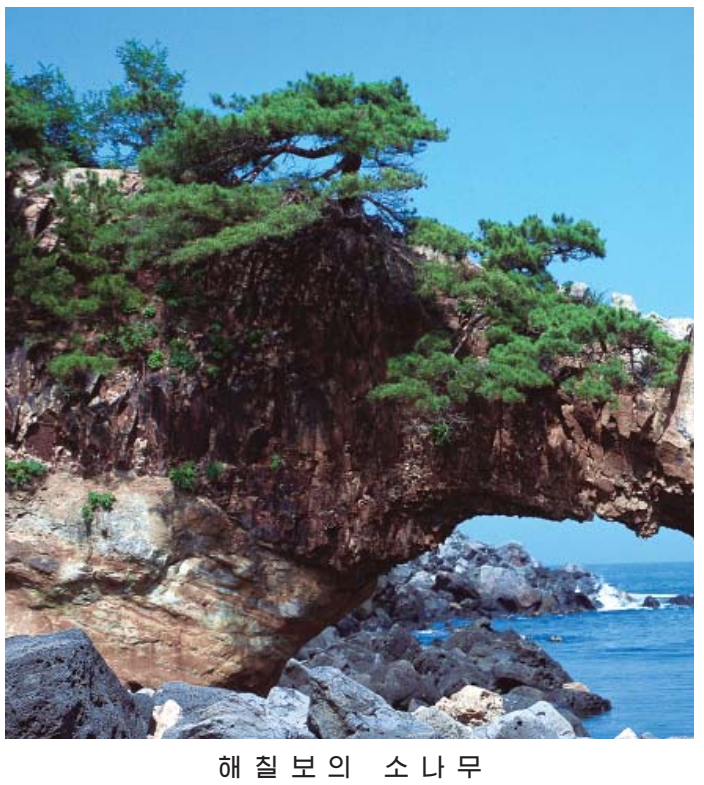
지금 조선에서는 《가리라 백두산으로》라는 새 노래가 전민이 부르는 심장의 노래, 애국의 노래로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령도자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온 나라 군민의 가슴에 심어주시려고 칼바람 맞받아 생눈을 헤치며 오르신 그 길을 따라 군인들도, 청년학생들도, 지식인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남녀로소가 백두산으로 저마다 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할 일념을 안고 백두산에 오르는 열풍이 온 나라에 불고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찌기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아 노래하신 지원의 뜻과 구상이 오늘은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날로 무성해가는 소나무숲과 더불어 천하제일강국의 빛나는 현실로 펼쳐져오고있다.

조선의 국수인 소나무는 신념과 의지로 최후승리를 마중해가는 공화국의 기상을 담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영원히 푸르러 설레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금강산의 소나무



해칠보의 소나무

신평의 소나무

부패《정권》의 파멸은 불가피하다

썩은 정치는 오래갈수 없다.

지난 17일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얼마 못가 자기 측근들이 저지른 엄청난 부정부패사건이 드러났다. 그것은 한 기업회장이 죽음으로써 세상에 폭로한것이다.

현 집권자의 전, 현직 비서실장들과 《총리》, 《새누리당》 출신의 인천시장, 부산시장, 경상남도 지사 등…

이전 집권자의 《4자방비리》(《4대강정비》, 《자원외교》, 《방위산업》)를 들추려다 자기의 구린내나는 치부를 먼저 보이게 되였으니 남잡이가 제잡이되였다고 할가. 어쨌든 보수집권세력은 가마나 솥이나 다 밑이 시커멓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성완종사건의 뿌리는?

현 집권자의 최측근들이 무리로 부정부패에 련루된 이번 사건을 보면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성완종이 현 집권자의 측근들에게 묵돈을 준 시기가 대체로 선거때이며 그들이 모두 현 집권자의 《친박계》 핵심인물들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하면 2007년과 2012년 현 집권자가 《대통령》으로 출마하던 때 그를 당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인물들이다.

그러니 초점이 자연히 현 집권자에게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집권자는 아닌보살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운운하고 《도피성》 해외행각의 길에 올랐다.

《성역없는》이라는 의미가 참 묘하다.

집권자의 발언후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의 정치적타살로 비명에 간 로무현《대통령》까지 걸고들면서 야당의 선거자금문제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보수언론은 성완종이 남긴 문건에 야당인물들도 있다고 허위보도를 하였다.

《비장한 각오》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다짐한 법무부 장관은 야당집권시절 성완종의 경력에 물음표를 달면서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자금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다.

《성역없는 수사》라면 응당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집권자자신부터 포함하여 부패에 련루된 모든 정치인들이 수사대상에 올라야 할것이다. 그러나 집권자는 해외로 빠지고 검찰의 칼끝은 엉뚱스레 야당에도 겨누어지며 사건을 흐지부지해버리려는데로 사건이 흘러가고있다.

부패의 계주봉을 이어

남조선의 야당은 이번 사건을 《현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의 문제》로 보고있다.

현 남조선《정권》의 도덕적부패상과 권력을 강탈한 죄악상을 폭로하며 드러난 사건들은 이번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생겨, 현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래 쉬임없이 터지고있는 부정부패사건들이다.

남조선에서 보수와 부패는 동의어이다.

남조선에서 력대 보수《정권》들치고 부패에 련루되지 않은 《정권》이 없고 부패로 망하지 않은 《정권》이 없다.

리승만《정권》이 《국민방위군사건》, 《중석딸라사건》 등 갖은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고 종당에는 항쟁의 파도에 밀려 종말을 고한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유신》독재권력하에서 비법적인 《정경유착》은 더욱 심해지고 남조선은 이전에도 이번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

특대형불법《대선》개입사건이 터졌을 때도 보수집권세력은 권력기구를 총동원하여 야당의 정보원 녀직원에 대한 《구속》을 사건화하여 맞불을 놓았고 《세월》호참사때에는 《종북》소동으로 민심의 분노를 다른데로 돌리려 하였다.

그 못된 버릇은 고칠수 없는가보다.

그러나 그 어떤 비렬한 모략이나 조작, 비뚤어진 수사로도 특대형부패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릴수 없으며 민심의 분노의 화살은 부정부패의 주범인 현 집권자에게 쏠리게 되여있다.

남조선의 야당은 이번 사건을 《현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의 문제》로 보고있다.

현 남조선《정권》의 도덕적부패상과 권력을 강탈한 죄악상을 폭로하며 드러난 사건들은 이번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생겨, 현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래 쉬임없이 터지고있는 부정부패사건들이다.

남조선에서 보수와 부패는 동의어이다.

남조선에서 력대 보수《정권》들치고 부패에 련루되지 않은 《정권》이 없고 부패로 망하지 않은 《정권》이 없다.

리승만《정권》이 《국민방위군사건》, 《중석딸라사건》 등 갖은 부정부패행위를 저지르고 종당에는 항쟁의 파도에 밀려 종말을 고한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유신》독재권력하에서 비법적인 《정경유착》은 더욱 심해지고 남조선은 부패의 천국으로 되였다. 당시 남조선출판물이 《〈유신정권〉의 부정부패는 근대화되였다.》고 할 정도로 부정부패행위는 《특혜》, 폭리, 사기협잡, 밀수, 탈세 등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형태로 진화하였다.

1960년대 당시 《유신》독재자를 포함한 4명의 부정축재자들이 차지하고있는 개인재산이 남조선통화량의 50%를 차지하였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1971년 남조선잡지 《신동아》는 《하도 많은 부정사건과 의혹사건을 겪어온지라 이제는 세상을 벌컥 뒤집어놓을 큰 부정이 드러나 신문지상을 장식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면역되여버렸다.》고 개탄하였다.

《유신》독재자의 본을 따서 쿠데타로 집권한 《5공》독재자인 전두환이라 하면 특대형부패범죄 등으로 지금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는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집권 8년간 무려 7억 8 000만US$에 달하는 천문학적액수의 《비밀자금》을 조성하여 놓고 그 진상이 드러난 이후에도 돈이 없다며 감춰둔 검은 재산을 거의나 반납하지 않은 역도의 추악한 행위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인간의 렬끝만 한 량심도 없는 너절한 돈벌레의 행위가 아닐수 없다.

세상을 놀래웠고 그 이후에 아들이 관리하다가 드러난 《비자금》도 1 380만US$의 거액이였으니 그의 부정부패솜씨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이다.

《6공》독재자 로태우는 건당 100억원이 넘는 대형추문사건만도 수십건, 《로태우가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종신징역형으로도 모자라 최소한 4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것》이라고 당시 남조선의 《CBS》방송은 까밝혔었다.

《문민》을 표방하며 집권한 김영삼은 또 어떠했는가.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부정사건》으로 알려진 《한보그룹사건》 등으로 남조선경제를 망쳐먹고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까지 받게 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부패의 대명사였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총재를 했던 리회창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기부예산횡령사건》(《안풍》), 《국세청사건》(《세풍》)과 함께 일명 불법《대선》자금사건인 《차떼기》의 《원조》로 알려져있다.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등장한 리명박은 《차떼기》정도가 아니라 《자원외교》, 《대운하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경제와 자연환경을 더 파괴시키고 그 막뒤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 죄로 민심의 저주를 받고 지금 조사를 받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번 성완종사건도 이전 《정권》의 부정부패를 들춰내던 과정에 드러난 또 하나의 엄청난 부패사건이니 보수《정권》은 부패로 살찌고 부패를 바퉁처럼 이어가는 썩은 집단이라 해야 할것이다.

보수《정권》치고 부패에 련루되지 않은 깨끗한 《정권》이 하나도 없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보수《정권》이 남조선 현 집권세력의 말은 파렴치한 거짓말이였다. 오히려 부패경력을 가진 이전 보수집권세력들을 찜쪄먹는 부패왕초집단이였다.

《깨끗한 공직사회건설》, 《청렴》 이것도 다 저들의 구리고구린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속임수라는것이 드러나게 되였다.

《부패와의 전쟁》,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대상으로 벌리는 전쟁 아닌 전쟁으로 되였으니 21세기 《돈 끼호떼》를 재현한 세상웃기는 희비극이 되였다.

콩 심은데 콩 난다고 독재와 부패를 유전인자로 한 보수가 아무리 갑작변이를 한다고 해도 본성이야 달라지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남조선 인민들은 현 보수집권세력의 거짓말에 너무도 속아왔고 너무도 위험하게 빠져들었다.

《세월》호참사 하나만 보아도 수백명의 아이들의 근로하는 인민들이 아니라 대기업체들과 특권층의 리익만을 대변하는 《정권》이기에 《정경유착》은 생리로 되고 부정부패는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게 되여있다. 박근혜《정권》도 집권초기에는 《복지》니, 《민생》이니 입이 닳도록 떠들었으나 그 거짓공약은 얼마 못가 거덜이 나고 가진자들, 특권층의 리익만을 대변하는 권력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 《정권》이 민생은 짓밟고 독점재벌들의 배를 불리워주면서 뒤에서 하는 일이 이처럼 너절한 부패행위이다.

썩은 《정권》이 갈길은…

《돈문제에서는 깨끗하다.》고 하던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의 말은 파렴치한 거짓말이였다. 오히려 부패경력을 가진 이전 보수집권세력들을 찜쪄먹는 부패왕초집단이였다.

《깨끗한 공직사회건설》, 《청렴》 이것도 다 저들의 구리고구린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속임수라는것이 드러나게 되였다.

《부패와의 전쟁》,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대상으로 벌리는 전쟁 아닌 전쟁으로 되였으니 21세기 《돈 끼호떼》를 재현한 세상웃기는 희비극이 되였다.

콩 심은데 콩 난다고 독재와 부패를 유전인자로 한 보수가 아무리 갑작변이를 한다고 해도 본성이야 달라지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남조선 인민들은 현 보수집권세력의 거짓말에 너무도 속아왔고 너무도 위험하게 빠져들었다.

《세월》호참사 하나만 보아도 수백명의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집권자와 집권세력은 무자비하게 칼질하였다.

1년이 지나도록 진상은 오리무중이고 아직도 차디찬 바다속에는 눈을 감지 못한 아이들이 잠겨있다.

《준비된 녀성대통령》이 만들어낸 비극의 일단이다.

《종북》소동,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국민대분렬》을 만들어낸 황당하고 무지스러운 독재광란이다.

빈부격차가 세계적인 남조선은 리념대립에서도 《세계적인 표본》처럼 되였다.

세계적으로 자살 1순위를 차지하고있는 남조선에서 《복지사회》란 고목에 씌운 면사포라는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문제가 보여주듯이 아이들의 점심밥까지 빼앗으려는 그런 권력이 어른들에게서는 생껍질을 벗기자고 들것이다.

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 《세월》호참사, 《인사참사》, 《대선공약》파기, 《정윤회국정개입사건》 등 현 보수집권세력은 남조선을 민주폐허지대, 인권도살장, 불법무도의 독재란무장으로 만들었다.

《나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옛 시대의 성구만이 아닌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한다.

독재는 인민을 이긴적이 없고 부패한 정치가 오래간적이 없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등지고 부패로 연명해가는 썩은 보수《정권》의 앞날은 없다. 언제나 악취만을 풍기는 보수의 미래도 없다.

본사기자 김정혁

만평 성완종사건의 몸통은?

집권 3년간의 《총리》 비화

최근 남조선정국을 강타하고있는 성완종사건이 당국과 집권여당의 숨통을 조이고있다. 전 경남기업 회장이였던 성완종으로부터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받아먹고 지금 민심의 심판대에 선자들가운데는 엊그제까지 《국무총리》를 하던 리완구도 있다.

새정치민주련합,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물론 《새누리당》내부에서도 첫째가는 부패혐의자인 리완구를 해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련이어 울려나오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론의되는 속에 20일 리완구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사의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영예로운 은퇴가 아니라 비참하게 쫓겨난 또 한명의 《총리》였다.

그가 《총리》직에 머문 날은 불과 63일밖에 안된다. 이에 남조선언론들은 력대 《최단명총리》라고 비꼬았다.

문제는 《총리》직에 내정되고 임명되였다가 민심의 저주와 규탄속에 물러난자들이 현 남조선《정권》하에서 한두명이 아니라는것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 《초대총리》자리에 올랐던 정홍원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4월 사의표명을 했던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 대신으로 현 집권자가 《총리후보자》로 지명했던 안대희는 대법관퇴직후 변호사노릇을 하면서 불과 5개월동안에 무려 1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법피아(법관+마피아)》라는것이 드러나 스스로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총리》자리가 비는것을 막으려고 집권자가 다시 지명한 《총리후보자》였던 문창극은 외세가 강요한 나라의 분렬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고 일본군의 성노예문제를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고 망발을 해댄 극악한 매국노라는것이 드러나 《총리》자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여론의 칼도마우에서 얻어맞다가 얼마 못가 스스로 꼬리를 사리였다.

할수 없이 사의표명을 했던 정홍원이 다시 《총리》직을 이어나가는 희비극이 벌어졌다.

사대매국과 파쑈폭압, 민생외면으로 안팎의 규탄을 받고 사면초가에 빠진 집권자가 분노한 여론을 눅잦히려고 임명했던 총리가 바로 리완구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 민심의 화살에 맞아 나떨어졌다.

참으로 《총리》복이 너무도 없는 현 남조선당국자라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 참담한 현실은 집권자가 제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정치가 바로 되려면 민생을 돌보고 민심에 귀기울여야 하겠는데 박근혜가 집권 3년간 해온 일은 민심에는 귀를 막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대굴종과 독재, 동족대결에만 매달린것뿐이였다. 제가 그러하니 《총리》직에도 신통히 부패와 매국으로 삶이 더럽혀진 그따위 인물들만 등용하였다. 그러니 《총리》, 《총리》지명자들이 하나같이 단명으로 정치인생을 마치는 비참한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수 없다.

결국 문제는 민생은 안중에 없고 사대굴종과 1인독재, 동족대결에만 혈안이 되고있는 집권자자신에게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대화》를 말할 체면이 있는가

최근 남조선군부호전광들과 통일부당 떠들어대는것은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자들의 파렴치한 궤변에 불과하다.

국자들속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날말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15일과 18일 군사분계선과 연평도에 나타난 남조선군합참의장, 해병대사령관이란자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적도발시 주저함이 없이 처절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화약내나는 폭언을 내뱉었는가 하면 17일에는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서 《북이 지속적으로 위협하면서 도발적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와는 상반되게 17일 기자간담회장에 나타난 통일부장관 홍용표는 《4월이 지나간 시점에서 남북관계에서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을것 같다.》느니 뭐니 했는가 하면 통일부고위당국자를 언론에 내세워 《대화》니 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도 늘어놓았다.

21일에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5년도시행계획》이라는것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여기에 《광복70주년남북공동기념행사》니, 《대화개최를 도모할것》이라느니 하는 문구들을 집어넣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이 광란적으로 벌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화약내가 채 가셔지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한쪽으로는 북침전쟁연습에 발광하면서 그 무슨 《남북관계가 풀리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과연 남조선보수당국에게 한쪼박의 량심이라도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오늘날 북남사이에 대화도 협력도 없이 대결과 전쟁의 랭기만이 감돌고있는것이 무엇때문인가. 올해초 신년사를 통해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한 동족의 선의에 외세와 야합한 북침핵전쟁연습으로 대답해나선 남조선당국의 반통일대결책동때문이 아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고 정세를 전쟁접경의 최극단에로 몰아간 장본인이 저들의 엄청난 대죄악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응징》이니 뭐니 하고 지어 《대화》타령까지 늘어놓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다.

남조선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북남관계개선은 결코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이 명명백백한 사실앞에서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정신을 바로 차리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정학준

《〈세월〉호는 학살!》, 《박근혜는 퇴진하라!》

남조선 각지에서 격렬한 반《정부》투쟁 전개

《세월》호참사 1년을 맞으며 남조선 각지에서 격렬한 반《정부》투쟁이 계속 벌어졌다.

16일 서울광장에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추모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리화녀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명지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녀자대학교 학생들의 추모행진이 있었다.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회의, 4.16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학생, 시민 6만 5 000여명이 추모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들을 죽음에로 몰아넣은 살인《정부》를 단죄한다고 절규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박근혜는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광화문광장을 향해 시위행진에 나섰다.

이날 공안당국은 시위행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다른 지방경찰청 병력 130개 중대 1만여명, 300여대의 차량을 투입하여 광화문광장으로 통하는 네거리를 완전봉쇄하고 시위진압에 광분하였다.

《세월》호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이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에서 있었다.

《세월》호참사 진도군범군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은 추모의식에서 《정부》가 시급히 《세월》호를 인양하고 실종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것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추모식에서는 유가족들과 시민, 사회, 종교단체 성원들이 《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선체인양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대전과 인천, 충청북도 청주시를 비롯한 각지들에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정부》의 《시행령안》의 철회 등을 요구하는 의식이 있었다.

한편 이날 청년단체 성원들이 현 《정부》의 도덕적, 정치적파산을 선고한다, 박근혜가 해외행각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삐라를 뿌리며 항의행동을 벌렸다.

17일 남조선의 서울광장에서는 《민주주의국민행동》, 《세월》호참사 범국민대책회의의 주최로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초불집회가 전개되였다.

《세월》호유가족들과 각계층 시민 수천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어 《세월》호참사의 비극적사태를 보여주는 상징의식이 있었다.

징소리가 울리자 참가자들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진실을 밝히자!》라는 구호가 새겨진 4 160개의 초불로 침몰하는 《세월》호와 인양된 《세월》호를 형상하였다.

이날 파쇼공안당국은 137개 중대 1만 1 000여명의 경찰병력과 400여대의 경찰뻐스를 투입하여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일대에서는 500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3만여명의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한 범국민집회가 진행되였다.

남조선당국은 1만 4 000여명의 경찰병력을 내몰아 집회시작전부터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장으로 가던 유가족들을 포함한 20여명을 강제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 *

《세월》호참사 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해외동포들도 집회와 시위를 전개하였다.

재미동포들은 16일 미국 로스안젤스에 있는 남조선 총령사관앞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도이칠란드 베를린의 브란덴부르그문앞에서 동포들과 류학생들이 집회를 가지고 《세월》호참사에 의한 희생자들을 추모하였다.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빠리에서도 동포들이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시위 등을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단상

세계에서 가장 큰 분노의 초불

1955년 8월에 영국에서 기니스기록집의 초판인 《기록대전》이 나왔다. 기니스기록집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각이한 기록들을 종합하여 발행하는것으로서 인류출판력사에서 발행수량에서나 판매량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세계기록을 수립하였으며 세계도서관들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도서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 기록집에 오르기 위해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노력들을 한다. 그리하여 각이한 세계기록들이 그 책에 기재되고 날로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세월》호참사 1년을 맞으며 《세계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는 명칭으로 집회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은 4 160개의 초불로 침몰한 《세월》호를 형상하여 《사람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불꽃영상》이라는 내외의 반영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세월》호참사로 인한 남조선인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그대로 담은 비극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있어서는 안될, 얼마든지 구원할수 있었던 수백명의 어린이들을 차디찬 바다물속에 수장한 《세월》호참사는 말그대로 권력에만 환장이 되여 인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이 낳은 비참한 현실이다.

그때로부터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9명의 시신은 바다속에 그냥 잠겨있고 《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학살의 주되는 책임이 있는 당국은 오히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경찰을 내몰아 무차별 탄압하는 광기를 부리였다.

그러니 남조선인민들이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세월》호참사 1년이 되는 날 서울광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불들로 가라앉은 《세월》호모형이 만들어진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4 160명이 초불을 들고 새긴 《세월》호모형, 그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분노의 초불이며 살인《정권》에 대한 민심의 크나큰 저주이다.

서 희

민생을 짓밟는 참혹한 인권유린지대

살인자가 피해자들을 탄압한다

지난 18일 남조선의 서울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1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되였다.

고인을 추모하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이다. 더우기 이날의 행사는 《세월》호참사로 원통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넋을 달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요구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행사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세월》호참사를 몰아온 저들의 반인륜적인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희생자들의 령혼을 달래는 추모행사를 보장해줄 대신 파쑈경찰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경찰은 초불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대는것은 물론 캡사이신(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물질)과 같은 독성물질을 시위자들의 눈과 피부에 발라놓아 고통을 주며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파쑈경찰의 야만적인 탄압으로 수십명의 행사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고 《세월》호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100명이 철창속에 끌려갔다. 하기에 집회장도처에서 《유가족이 죄인이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렇게 추모집회를 무참히 짓밟은 파쑈경찰은 이것도 성차지 않아 18일의 추모집회를 《불법,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을 로골화하고있다.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하고 원통하게 목숨을 잃은 수백명의 학생들과 아직도 차디찬 바다속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9명의 희생자들의 령혼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야수도 몸서리칠 정도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 모습은 그대로 《유신》독재시기 진행되던 야수적인 시위진압만행을 방불케 하고있다.

지금도 사람들은 《유신》독재자와 그뒤를 이은 군부독재자들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사람들에게 저지른 피비린 살륙만행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한 죄악이 20세기도 아닌 21세기에 와서 다시 되풀이되고있으니 이것이 바로 현 보수당국이 떠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이다.

바다물은 한숟가락의 물만으로도 충분히 짠맛을 알수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인권》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에 대하여 떠들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조선현실은 어떠한가.

다른것은 그만두고 《세월》호참사 1년을 맞으며 벌어지는 파쑈폭압만행만 놓고보더라도 남조선이 파쑈독재의 란무장, 인권의 폐허지대라는것을 너무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력사는 반복된다는 옛 명인들의 말이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4.19인민봉기로 피흘려 쟁취한 소중한 민주주의싹을 5.16군사쿠데타로 짓밟고 파쑈독재를 일삼다 비명에 횡사한 《유신》독재자나 그뒤를 이은 군부파쑈통치자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현 남조선당국이 더 포악한 파쑈독재에 매달리고있으니 남조선에 보수세력들이 집권하는 한 파쑈독재의 력사는 계속 재현되고있어 옛 명인들의 말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폭압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분노한 민심의 바다가 종당에는 독재권력이라는 배를 뒤집어엎기때문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인륜도덕도 모르는 야만의 무리들

남조선의 현 당국이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것도 모자라 《세월》호참사 1년을 맞으며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아가며 야수적으로 탄압한것은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모르는 야만의 무리들만이 할수 있는짓이다.

《세월》호참사로 생때같은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원통하게 잃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 그들의 명복을 빌어온 유가족들과 그들을 동정해나선 평화적 주민들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 보수당국은 중무장한 파쑈경찰을 내몰아 그리도 야수적으로 짓뭉갠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유가족들에게 두벌 죽음을 강요하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저들의 치떨리는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대신 그것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오히려 《공권력》을 휘두르며 탄압하는 남조선당국이야말로 인간성이라는것은 꼬물만큼도 없고 법도 정의도 모르는 야수의 집단이라 해야 할것이다.

평양시 평천구역 간성동 김 동 철

이게 사람이 할짓이냐

《세월》호와 함께 생때같은 아이들이 수장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갔다.

하지만 오늘도 죄없는 아이들이 수백명이나 왜바다에 수장되여 생죽음을 당했는가를 밝히는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도 그들또래의 자식을 키우고있는 어머니이다.

그래서 꽃망울도 터쳐보지 못한 아이들이 차디찬 바다물속에서 엄마를 부르며 숨져갈 때 그것을 보면서도 자식들을 구원해주지 못한 어머니들의 피터지는 심정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있다.

돈으로는 자식들을 위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계산할수 없다.

그런데도 녀성《대통령》이라는 남조선집권자는 진상규명을 회피할뿐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여 파쑈광의 본색을 드러내고있다. 아이들을 죽여놓고도 가슴에 피멍이 든 어머니들을 비롯한 유가족들을 어루만져줄 대신 더 큰 아픔을 주고있으니 이게 사람이 할짓인가.

《세월》호참사와 그후 1년을 보면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마구 짓밟는 사람 못살 남조선사회에서 나와 우리 자식들이 살지 않는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세상을 둘러보아도 남조선과 같은 암흑세상은 없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1동 김 성 녀

국제대사령이 남조선당국을 비난

《세월》호참사 1년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남조선당국의 파쑈적폭압만행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국제인권단체가 남조선경찰의 반인권적탄압행위를 단죄하였다.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18일 국제대사령이 파쑈경찰의 만행을 비난하는 립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서울과 영국 런던에서 동시에 발표하였다.

국제대사령은 남조선경찰병력이 집회와 시위를 진압한것은 《세월》호참사희생자와 유가족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것은 평화적인 집회참가자들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